

민 정 실	음 진 천
-------------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금강경 독경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오늘의 나,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지금의 생각, 내일의 나 꾸며낸다.  
 마음은 우리 인생 창조해 내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림자 자기를 따르듯 기쁨이 따른다네.

What we are today comes from our thoughts of yesterday, and our present thoughts  
 build our life of tomorrow: our life is the creation of our mind.  
 If a man speaks or acts with pure mind, joy follows him as his own shadow.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종단소식:

## 조계종, 캄보디아 포교 박차

실천불교, 18 일 캄보디아 현지서 'BWC 사업'준공식 개최

총무원장 지관스님, 캄 국왕과 환담 “한-캄 교육, 복지 등 불교교류 확대”

“사단법인 실천불교의 원력으로 세워진 고아원과 교육시설은 형제국가인 캄보디아를 후원하는 한국불교의 첫걸음이자 양국 불교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18 일) 오전 10 시(한국시각 정오경) 캄보디아의 옛 수도 시엠립에서 봉행된 ‘BWC 사업’ 준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BWC 사업’은 ‘Beautiful World of Cambodia’의 약자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효림스님) 산하 법인 실천불교(이사장 지선스님)가 이 지역 떡웰스룩뿌마을에 지난 2002 년 12 월부터 추진해온 고아원, 초등학교 시설 건립사업.

‘BWC’는 불교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조계종 차원의 첫 사업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내 조계종의 거점으로 불교국가와의 교류와 지원을 증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준공식 이틀 전인 16 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준공식에서 “부모 없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 선진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문맹퇴치’에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계종을 대표하여 실천불교의 고아원 운영 및 교육사업이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잔소필 시엠립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아동복지와 교육사업을 위해 애써준 한국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캄-한의 교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늘뜻 캄보디아 사회복지부장관 대리는 “현재 캄보디아에는 173 개 고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에서 설립한 민간시설은 총 153 개에 이른다”면서 “154 번째로 설립되는 ‘BWC’가 교육을 중점으로 한 캄보디아 아동복지시설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측에 감사를 표했다.

2003 년 캄보디아 주재대사로 부임한 이한곤 한국대사도 준공식에 참석,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의 진정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10 년 전인 1996 년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이 나라에 복지사업을 추진키로 서원했던 성관스님(캄보디아 BWC 대표)은 “지구상에 인류가 남긴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성스러운 앙코르와트 주변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BWC 사업을 계획했다”며 “앞으로 30 여년간 보육원과 교육시설을 캄보디아 전역에 확대 건립하여 문맹퇴치 운동과 사회복지운동을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천불교는 캄보디아에 한국사찰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 BWC 에 법당을 설립 포교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캄보디아 인접국가인 라오스와 미얀마 등에도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조계종의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지선스님,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성관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스님, 기획실장 동선스님, 호법부장 도진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 조계사 주지 원담스님 등 스님 35 명과 재가신도 100 여명이 참석했다. 싹행 사회복지부장관, 니힘반다 캄-한 친선협회장 등 캄보디아측 인사도 10 여명 참석했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준공식 하루 전날인 17 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텀퐁 캄보디아 중정 등을 만나 BWC 설립과 운영사업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BWC 준공식을 마치고 19 일 앙코르와트와 톤레삽 호수 등지를 관광하고 도선사 교류사찰인 라지보사원 등을 방문하고 20 일 한국에 도착한다.

참된 불교인이 되기 위한 통과례

양족존 이욕존 중중존은 결국;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 의지함

참된 불교인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례가 바로 삼귀의(三歸依)이다. 삼귀의는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이다. 삼보란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을 보석에 견주어 표현한 것이다.

불(佛)·법(法)·승(僧) 삼보는 확실히 이 세상의 빛나는 보석이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 및 이를 유지 전승하는 교단이 없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종속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神)에게 종속되고, 재물에 종속되고, 명예나 술, 마약 등에 종속되어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고, 명예나 술, 마약 등을 섬기면서, 정작 주인인 자기 자신은 영원히 종노릇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으리라.

종노릇하는 이의 행복과 불행은 온전히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신의 가호에, 재물에, 명예나 술, 마약 등에 행복과 불행을 걸어놓고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의 가호나 재물 그리고 술이나 마약 등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조건 지워진 삶에 다름 아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외부에 조건 지워져 있는 만큼, 그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 더 큰 신의 가호, 더 많은 재물, 더 나은 명예 등등 무한정한 집착에 매달려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과 같이, 집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편안할 날이 없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다가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서는 당당히 이르셨다. 바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모든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막연히 신의

가호를 바라다거나, 끊임없이 재물과 명예를 집착한다거나, 술이나 마약 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주인 됨을 회복하면, 이러한 모든 외부조건은 그야말로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잠시 왔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다. 바람이 불건 말건 끄떡없이 서 있는 저 큰 산과 같이, 주인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건 지워지지 않은 삶은 평안하다. 자신의 잘못을 면해보려고 안달하지 않는다. 잘난 점을 드러내보이고자 애쓸 것도 없다. 그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갈 뿐이다.

좀 더 커 보이려고 까치발을 들고 사는 인생은 피곤하다.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마저 불안케 한다. 까치발을 내려놓는 순간 일단 편안해진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다보면 가치의 척도가 ‘남’에게 있게 된다. 남의 이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첩경이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삼보를 또한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자성의 삼보에 귀의해야 하니, 부처란 깨달음(覺)이요, 법이란 바름(正)이며, 승이란 깨끗함(淨)이다. 육조스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사된 미혹이 나지 않으며,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 재물을 여의고 색을 여의는 것을 양족존(兩足尊)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사되지 않으므로 곧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離欲尊)이라고 한다. 자기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衆中尊)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귀의한다는 것, 즉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듯 소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보여 각자의 주인 됨을 직시케 하신 불·법·승 삼보에 어찌 귀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법회소식 NEWS

- 불국사에서 현재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제작은 매주 법회가 끝난후 있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불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가가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이수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월 2일에는 Westminster Chistian Academy-River Bend 학교에서 불국사 방문 법회가 있었습니다.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불국사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봉사를 해주신 안소혜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국사 후원회 회원들은 금산스님이 상주하고 계신 격외선원에서 철야정진 및 수계법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부처님 제가가 되고 불명을 받으신 회원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 4월 16일 셋째주 일요일에는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점심공양이 있습니다.
- 양력 5월 5일 (음력 4월 8일) 은 2550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 부처님 오신날 입니다. 불국사에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행사를 4월 30일 다섯번째 주 일요일 정기 법회때 갖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기도 입제는 4월 23일에 갖습니다.

- 2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85번 계해생 이옥순, 86번 무자생 김대원, 87번 신묘생 대승행 변정자, 308번 임인생 해운 정중현, 309번 임인생 양경숙, 310번 무진생 정혜지, 311번 을해생 덕운 정운호, 312번 경진생 정은주, 313번 경인생 양은석, 314번 임진생 박혜리, 315번 경신생 양명훈, 316번 임술생 양우주, 317번 임인생 조선규, 318번 병오생 박진희, 319번 계유생 조대근, 320번 조상균.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2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목영욱 (선법장 윤선정, 목문석), 김태성 (수정화 이금주, 김준협), 홍대선 (청정행 정혜주, 현덕 홍준수), 황현식 (박계영, 황수연, 황준길), 유행석 (이경주, 유동원), 구은석 (권나연, 구지윤), 강광석 (김중임, 강임준, 강혜진), 차영애, 문장우 (보우행 김영남, 문병호), 강연아 (김익환).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